



페미니스트 예술가 윤석남 박영숙의 영화보고 수다 떨기 영화속 '자매애' 보다 진한 우리들 30년 우정



박영숙 (41년생 · 사진작가)
위풍당당. 70년대 말부터 줄곧 고집해온 짧게 밀어올린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마크다. 멋스런 귀걸이, 자주색 안경테, 반가운 이를 보면 정열적으로 포옹하거나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건넨다. 그 모습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준다.
넋 나간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어 선보인 연작 '미친년 프로젝트'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윤석남(39년생 · 서양화가 조각가)
외유내강. 언제나 진지한 목소리로 앞에 앉은 이를 편안하게 하는, 힘을 안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90년 들어 버려진 나무, 빨래판 등에 아름답지만 서글픈 한국의 어머니 모습을 그려 넣은 설치 작품으로 자신의 삶과 여성적 현실을 일치시키고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후 매년 형식적 실험을 거듭하며 독보적인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윤: 치유하지 않고 남편을 죽이는 결로 끝을 맺는 걸 보고, '가부장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로 읽었어. 가부장제라는 굳건한 시스템을, 남편을 죽임으로써 해체시키는 거야. 놀랐던 건, 독일이라는 선진화된 세계에서 아직도 저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였어.

"천 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즐겁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중에서)

조각가 윤석남과 사진작가 박영숙. 둘은 이 시기에 딱 들어맞는 친구다.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하는 두 사람의 우정은 벌써 30년 세월을 헤아려 간다. 공동작업을 하면서 자매애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두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실험적이며' '나이를 느낄 수 없는 최첨단' 여성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점심 먹으며 나는 영화 이야기 가부장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어느덧 중반을 넘겨가던 6일 신촌 아트레온. 아침 일찍 영화를 보러 나온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두 사람이 고른 영화는 감독특별전 초대작인 <완전히 미친>.

영화를 본 후 두 사람은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로 하고 극장 근처 일식우동집에 앉았다. 영화의 잔상이 남아있던 탓인지 얘기는 바로 영화로 이어졌다.

윤: 루스의 결혼생활은 억압 그 자체지. 남편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한 가운데 생긴 문제를 꽤 잔잔하게 그렸어. 그렇지?

박: 반대로 올가는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자기가 나아갈 바에 대해 잘 알고 있지. 그런 올가를 통해 루스가 깨어나는 거야.

윤: 세상에! 남편은 너무 시시한 이유로 루스를 옹죄잖아? 어이가 없었어.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소유하려고만 하지.

박: 루스의 화가적 재능을 발견해낸 올가는 전시회를 열어주려고 했고, 정작 한없이 루스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프란츠는 아내가 자기 곁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 돈을 주고 전시회를 취소시켜 버렸다는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는데 온 몸에 전율이 흐르더군. 그 사실을 알게 된 루스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두 사람이 본 영화 <완전히 미친>은

<완전히 미친>은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인 마가레테 폰 트로타 작품으로 올가와 루스라는 두 여성의 잔잔하면서도 가슴 먹먹하게 다가드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두 사람의 진한 자매애가 영화 전면을 이끌어가지만 두 사람은 무척 다르다.

올가는 완고한 가부장적 질서 속에 파묻혀버린 여성작가를 발굴해 여성주의 언어와 표현의 계보학을 세우려는 페미니스트 문학가다. 반면 내성적인 성격의 화가 루스는 약간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루스의 남편인 프란츠가 올가와 아내 사이를 격려하면서 올가와 루스의 우정은 점점 깊어가지만 둘이 이집트로 함께 여행을 떠난 후부터 남편은 질투심에 험사하게 된다. 루스는 남편과 친구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남편 프란츠에게 권총을 발사하는 대단히 상징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다.

'토즈' 라운지 공동작업 그리고 우정 석남은 '배려' 하고 영숙은 '주장' 만 해

영화에서 남편은 돌아가 친하게 대해주는 건 다 자기의 부탁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 봐 루스, 우정이 라는 것도 다 노력이 필요한 거라구!" 두 사람의 우정도 노력이 필요했을까?

윤: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지속될 수 있다고 봐. 우정도 마찬가지지. 윤가와 루스도 첫 만남에서 굉장히 강렬한 시선으로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잖아. 그랬으면서도 사소한 오해로 틀어질 뻔하기도 했고, 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잖아.

박: 윤석남(박선생은 호칭을 이런 식으로 한다)은 언제나 '배려' 하고 나는 늘 내 주장만 해.(웃음)

92년인가 윤석남과 함께 <자화상>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윤석남이 전시회 여는 글로, "남자들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우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예요..."

윤: 내가? 기억 안 나는데?(웃음)

박: 자기가 쓰기도 기억이 안나?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우정을 키웠어요" 라고 썼지. 공동작업을 세 번인가 같이 했어.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우정도 많이 쌓였어. 공동작업은

생각도 방향도 같아야 가능한 것이니까.

(두 사람이 제6회 '여성과 현실전'에 공동작품으로 출품한 <자화상>은 여성적인 형상과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여성미술가들 사이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여성미술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윤: 공동작업의 기본원칙은 개개인의 아우라를 깨는 거야. 한 작품을 둘이 같이 할 때 조화로움을 보여줄 수 있고, 혼자서는 작은 결과물이지만 둘이 하면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 수십 배 커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지.

박: 맞아. 플러스1의 개념이 아니지.

윤: 나는 영숙이와 공동작업을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 맘이 통했으니까. 영숙이는 가르치는 데 아주 탁월해. 핵심을 딱딱 짚어주면서 지적을 잘하지. 그래서 작품 할 때는 영숙이가 지적해주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많이 참고도 하고.

박: 윤석남 작품이 잘못되면 내 작품이 잘못된 것처럼 무척 자존심이 상해.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서로 말 못하고, 우린 그런 거 없어. 뭘 결정해야 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남의 점점을 받아야만 불안하지 않거든.

윤: 나도 그래.(동시에 웃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박: 상상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게 작품 활동이잖아. 주관적 해석을 남의 눈에도 읽힐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의 역할이 크시. 내 작품을 제일 먼저 검증받는 사람이라고 할까.



앞으로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허리 아프게 무거운 작품은 안했으면 좋겠어

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지? 각자 작업하면서 농도도 짙어지고 자기만의 영역이 점점 커져 가니까. 독립적으로 서가는 과정이라고 봐. 좋은 현상이야. 이제 곧 칠십을 바라보는데 그때까지 너는 왜 이러니 저러니 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에서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지 뭐. 그리고 보니 우리 친구 된지 30년이 다 돼 가는데 영숙이는 왜 아직도 '너' 라는 말을 안 해?

박: 아마 내 머리 속에서는 윤석남을 '존경' 하나봐.

윤: 아니 그럼 난 그럼 함부로 대했다는 거네? (웃음)

박: 윤석남이 나보다 두 살 많으니까 언니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보다는 존경심이 있는 거 같아.

사진하는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나' 를 찾는 것이 힘들어 무척 외로웠을 때 윤석남이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줬지. 윤석남한테는 사물을 깊이 있게 보는 '눈' 이 있어. 그러니 내가 '접근' 한 거지? (웃음)

윤: 우정이란 것도 노상 부딪치면서 한 길로 함께 가야 쌓이는 거지.

박: 말 나왔으니 하는데 제발 허리 아프게 무거운 작품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같이 오래 살아야 하잖아.

윤: 작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하루가 소중해. 나는 70이 넘

어서도 작품을 계속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요가랑 운동 꾸준히 하잖아.

박: 윤석남이야 원래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나? 통뻘야.(일동 웃음) 건강을 위해 달리기도 하고, 요즘은 반신욕에 푹 빠졌어. 잠 자기 직전에 하는데 5분 정도 지나면 벌써 느낌이 짜르르 온다고. 얼굴 근살도 다 빠진 것 같지 않아?

윤: 아휴, 근데 물이 너무 아깝다.

박: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윤석남!(일동 웃음)

에필로그

흠뻑리던 뭉비 속에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 기자는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친구 종자기를 그려보았다.

백아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거문고를 뜯으면 종자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했고,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하였다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예술가 1세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개척자들이었던 까닭에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후배 화가 정정업(43)씨는 말한다.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비판도 철저하죠. 후배들의 역할모델이 돼 주니 우리들에게겐 행운이지만, 아마 두 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진행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 사진 이의중

